

2017년 5월 26일, 구좌읍 하도리 하도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홍행춘(여, 1929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제보자2: 이승정(여, 1930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- 줄거리: 옛날 호열제가 창궐하였을 때, 병자들이 잠에 든 것임에도 죽은 줄 알고 산채로 묻었다는 일화이다. 제보자 할머니의 작은 딸이 호열제에 걸렸는데, 잠에 빠진 줄 모르고 죽었다고 오해하여 땅에 묻고 돌아왔다. 후에 작은 딸이 할머니의 꿈에 나와 일흔다섯 살 난 사람이 원래 저승에 올 것이었는데, 자신이 대신 왔다고 서럽게 이야기하였다고 한다.

[조사자] 옛날에 하도리에는 전염병들, 막 터는 병이나 뭐 이런 병들 엊우과?

[제보자1] 아. 그런 풋터는 벵은 그거 벵이 아이다. 우리도 막 혜나도 이제 호열제?뜬 거 사람 죽는 병을 헤도 그거는 달달달 떨엉 헌 건 그거 저 벵 아이더라.

[조사자] 그럼 호열제?뜬 거는 어떻 헤그네…….

[제보자1] 호열제는 그냥 막 급허게 설세낭 막 우로 토하고 무시거 헨 눈 히뜩히뜩 허멍 죽어부는 것이 호열제지. 경 허문 막 사람 못 뎅이게 이제 주사 막 낮에게. 이제. 이제 그런 거 었다.

[조사자] 당시 막 쐐영 호열자같은 게 못 들어 왓다는 그런 건 엊우과?

[제보자2] 그추룩은 못허지게.

[제보자1] 저. 그런 구신이 아니고 주사로 그만 놔부나네. 그런 독현 병은 우리 세대엔 안 봇다. 우리 저 할망덜은 옛말 곤나

“막 죽언에, 채 죽지 안한 거 묻어부난 돌아누웠지.”

“그 아멩이나 강 묻언 잘 묻젠 가보난 영 돌아누웠어렌.” 허고.

[조사자] 돌아누웠어렌?

[제보자1] 살안에 파들락파들락헌 거 아니가게. 곧 좀 잇인 걸 그냥 죽엇젠풍 묻으난. 잘 묻젠 이젠 강 판 보난 영 돌아누워비엿어렌게.

[조사자] 겐 그대로 죽어불언마씨?

[제보자1] 게. 죽주 어떻해. 게난 막 읊큰헨 완 울멍.

[제보자2] 그땐게 호열제라부난 이녁대로 어떻 엎어사 갓인디. 지게사 쟁인디

[제보자1] 우리 할마님이 열다섯에 이제 셋년이 죽으난.

“죽엇저, 죽엇저.”

헨 강 묻으난. 그날 주냑 꿈에

“일흔다섯 평이 사람 오렌 헌 거 나가난 오죽 헵디가, 오죽 헵디가.”

헤렌. 산 거 막 묻엇그렌 막 울더라게. 아이고.

[조사자] 꿈에 어떻 헷덴마씨?

[제보자1] 꿈에

“일흔다섯 살 오렌 헨디, 나가가난 무사 완단 막 육헤렌.”

일흔다섯 난 사람을 돌아갈 건디 열다섯 난 아일 돌아가난

“무사 완디?”

막 헹. 저 돌아간 사람이 핫단다. 옛날에. 그냥 죽엇젠 헨. 천 끊엉 뎅기당 간
묻언 잘 묻젠 보민.

“영 헷어라, 영 헷어라.” 막 곤는 거 들어낫저게.

[제보자2] 거 오죽 못전덧우과, 죽젠허난.

- 핵심어 : 호열제, 독한 병, 줌, 산 거, 산 송장, 생매장, 시체, 꿈